

2016 년 제 6 회 베트남문화축제 - 베트남근로자의 날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차관 DOAN MAU DIEP (류완 마우 리엵)
발표내용
(Seoul, 16/10/2016)

귀빈 여러분
참석해주신 주한 베트남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 제 6 회 베트남문화축제 - 베트남근로자의 날
자리에서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대표하여 오늘 축제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에게 가장
정중한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베트남문화축제- 근로자의 날을 성공하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 노동송출이 인력 개발과 일자리 창출, 수입
개선과 근로자의 능력 숙지 등 목표로 베트남과 노동 수용국가들간의
국제 협력 관계 강화를 중시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베트남과 한국간 관계는 많은 분야에서 신속하게 발전하며
날로 실질적으로 깊은 협력으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인력 개발과 노동
분야에는 1992 년부터 양국은 연수생제도를 실행했으며 그 다음에는
한국고용허가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베트남 근로자는 한국에서
취업하면서 한국의 현대적인 기술과 근무 방법을 접근하게 되어 귀국한
후에 국가 개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100,000 여명은 한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지난 년간에 베트남 근로자를 포함한 주한 베트남 공동체는
베트남과 한국간의 친선협력 강화와 다방면 관계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음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베트남문화축제 - 베트남근로자의날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전통음식 과
문화 공연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국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베트남 근로자여러분들에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베트남과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잘 준수하며 일을 열심히 하고, 고용주나 주민들, 또는 다른 국가에서 온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중에 더 좋은 일과 더 높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귀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본인의 근면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한국인분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은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는 실행하고 있는 자진출국자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자진출국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를 대신하여 저는 한국 정부와 지방 유관기관, 각 외국인력지원센터와 고용업체들은 베트남 근로자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베트남근로자와 다른 국가에서 온 근로자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바랍니다.

오늘 계기로 주한 베트남대사관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로 이축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주한 베트남대사관노무관사무소, EPS 근로자관리사무소와 재한 베트남교민회와 협력해 주신 유관기관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제가 매년에 개최될 것을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오늘 제 6 회 베트남문화축제 - 베트남근로자의 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